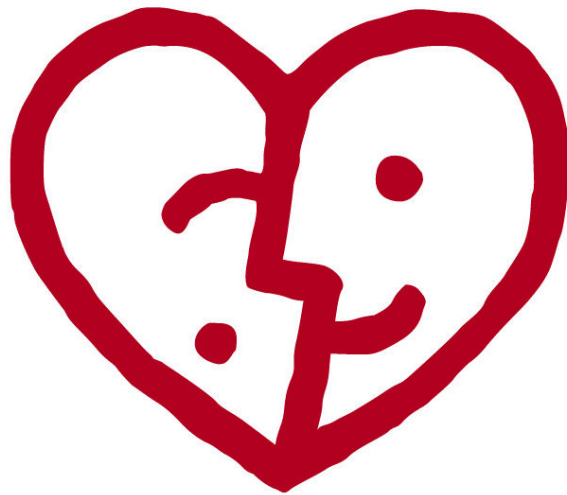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행사와 자원봉사



- 일시 : 2002년 12월 9일(월) 오후 2시 ~ 4시 30분
- 장소 : 부산광역시여성센터 대강당
- 주최 : 한국자원봉사포럼·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 후원 : 행정자치부·여성부·삼성사회봉사단·중앙일보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자원봉사포럼(Korea Volunteers'Forum)은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전략과 사회적 이슈들을 자원봉사학자 및 중견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학회 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임원구성

- 회장 : 금창태(중앙일보 고문)
- 총무 : 이성철(남서울대학교 교수)
- 고문 :
 - 최일섭(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대 회장)
 - 이윤구(인제대학교 총장, 한국자원봉사포럼 2대 회장)
 - 조해녕(대구광역시 시장, 한국자원봉사포럼 3대 회장)
- 운영위원
 - 고진광(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김길수(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 김영호(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통원(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민경춘(삼성미래연구소 상무)
 - 박영숙(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 박재진(기업은행 인력개발부 교수)
 - 이강현(볼런티어 21 소장)
 - 이창호(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 최성균(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장)

□ 사무국

우)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11-3번지 풍전빌딩 201호
Tel : 02-756-1046
Fax : 02-778-1047
E-mail : kovof@hanmail.net
H-page: www.volunteerforum.org

·간사 : 박신영(前 남서울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 조교,
남서울해외봉사단)

차 례

포럼일정	1
시민자원봉사헌장	2
발 제 1	3
박인호 (부산을 가꾸는 모임 대표)	
지정토론 1	21
변상준 (2002 부산아시아드지원협의회 사무국장)	
지정토론 2	26
이강현(볼런티어 21 사무총장)	
지정토론 3	27
김용식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시민지원협의회 운영본부장)	
포럼(회원)입회 신청서	32

포럼 일정

▶ **개회식(14 : 00 ~ 14 : 20)**

- 국민의례
- 시민자원봉사헌장 낭독
- 개회사 —— 금창태(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 축 사

▶ **주제발표(14 : 20 ~ 14 : 50)**

주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와 자원봉사

좌장 : 최일섭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자:

박인호(부산을 가꾸는 모임 대표)

▶ **지정토론(14 : 50 ~ 15 : 35)**

·토론자:

변상준(2002 부산아시아드 지원협의회 사무국장)

이강현(볼런티어 21 사무총장)

김용식(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시민지원협의회 운영본부장)

▶ **휴식 ——(15 : 35 ~ 15 : 50)**

▶ **전체토의 및 폐회 (15 : 50 ~ 16 : 30)**

시민자원봉사헌장

서 문

새 천년을 앞두고 인류는 세계평화와 번영, 풍요로운 삶을 더욱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계층간의 이기주의와 가족기능의 약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파생시켜 진정한 민주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현대의 공적 사회제도는 개인의 존엄성을 충족시켜줄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발전을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자원봉사는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천년을 향해 나아갈 기본 방향이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인도주의의 발로이며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등불이다. 그래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고 믿는다. 자원봉사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가없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공익적 활동을 의미한다.

기 본 정 신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민주시민공동체 형성과 성숙을 위한 필수적 활동임을 믿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긴다.
- 우리 시민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꾀하고 잠재력을 개발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과 사회발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 우리시민은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보완적 동반 관계에 있는 정부와 서로 협력한다.

행 동 강 령

- 우리시민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원봉사 대상자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모든 특성에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우리시민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과 지도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원봉사 기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우리시민은 개인적 특성과 능력 그리고 희망에 상응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우리시민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 대상자 및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지킨다.
- 우리시민은 성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봉사기관내의 다른 구성원과 협력하며 필요 시 지역 및 국제적 연대를 통해 봉사활동의 목적을 달성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와 자원봉사

박인호 <부산을 가꾸는 모임 대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와 자원봉사

박인호

부산을 가꾸는 모임 대표

1. 문제의 제기

자치단체, 국제행사와 자원봉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국제행사의 성공과 방문한 국내외 인에게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바로 자원봉사자의 사명이며 자긍심이기도 하다. 또한 자치단체의 행사기획과 내용이 성패를 가름한다. 부산개항 이래 2002년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와 자원봉사 월드컵 조추첨,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합창대회 등 세계적 대회가 집중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관중, 구경꾼, 동원된 시민에서 직접 참여하여 주인의식으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거뜬히 해치운 부산시민이 자랑스럽다. 그 성공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등이다. 경기 중 사망하거나 경기 후 몸이 아파 병원에 가는 분도 한 두 사람이 아니다. 행정이 해내지 못한 것을 시민과 행정이 힘을 합친 한편의 드라마 같은 봉사의 수범이 되었다.

앞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계속되고 이어질 때 부산은 전에 없던 봉사적 도시로서 세계에 공헌은 물론 이들에 의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2.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자원봉사(voluntarism)의 어원은 라틴어의 volo, 즉 '의지'에서 유래하였으며, volunteer라는 단어는 자유의지를 뜻하는 voluntas에서 유래한 파생어로서 volo에서 voluntary에 사람을 표현하는 접미어 -er을 붙인 말이다. 이 용어의 의미는 유지자, 지원병 등으로 통용되고 법적으로는 임의대행자, 무상봉사자 등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점차적으로 사회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김영호, 1989)

1977년판 미국 사회사업가협회(NASW)가 발행한 『사회사업백과사전(Encyclopedia of Social Work)』에서는 자원봉사를 '모든 분야의 사회복지활동에 관련된 민간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 보상 없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서비스 분야는 가정과 아동복지, 교육, 보건과 정신보건, 지역사회발달, 주택과 도시 재개발, 그리고 교정분야를 포함하였는데, 1995년판에서는 전통적인 활동인

직접적인 서비스활동 외에 변호활동, 시민참여활동, 정책결정에의 참여활동, 자조활동, 모금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즉,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 내지 지역의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성영혜·정길정, 2000)

이렇게 볼 때, 자원봉사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직접적인 자원(정신적, 육체적 자원)이나 능력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타인과 사회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추구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주민 모두가 자신이 알고있는 지역사회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노력이라 하겠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정신,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조직이란 세 가지 요소를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아실현성,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사회성, 공동체성, 복지성, 민주성, 개척성, 지속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김한구 외, 1997)

3. 봉사활동의 활성화 배경

첫째, 시민들의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는 운동으로서 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근대 이후 경제적 안정을 이룩한 선진국들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 복지를 계속 확대해 왔다. 그런데 국민들의 복지를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의 사회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그 역기능도 나타나게 되었다. 모든 면에서 국민들이 ‘국가’만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반면 현대 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봉사활동은 전통사회의 단순한 주민 참여나 온정주의적인 활동과는 달리, 보다 조직화되고 시민 사회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활성화되고 있는 봉사활동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이돈희, 1996)

둘째, 봉사활동에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추세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봉사 활동은 정부, 기업에 이은 ‘제 3의 섹터’라고 불리면서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곧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성인 54%가 주당 4시간의 자원 활동을 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51%, 일본의 경우도 전국민의 20%가 자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5세 이상 국민 중 현재 자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5.4%(‘91 통계청 자료)로 이 같은 현황은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5)

셋째, 봉사활동을 제도화하는 추세다. 봉사활동이 예전에는 주로 개인이나 종교 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에는 점차 제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이끄는 단체 및 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함과 아울러, 교육 체제와 봉사활동을 연계시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 주는 지난 85년 미국 최초로 공립학교 고교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키로 한 법을 통과시킨 후 92년에는 아예 75시간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필수화했다. 이 같은 제도화는 곧 미국 전역으로 확산돼 지난해까지 17개주 2백여 고등학교가 학생 자원봉사를 졸업 필수로 규정해 놓고 있다.”

4.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개인적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가. 개인적 필요성 : 봉사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첫째, 인간존중의 정신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다.

셋째, 자신감과 지도력을 형성할 수 있다.

넷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다섯째,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다.

여섯째, 보람있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

나. 교육적 장의 확대 :

첫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둘째,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에서는 제한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체험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다. 사회적 필요성 : 지역사회의 문제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서로 돕고 협동하는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태도를 극복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풍토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둘째, 시민들이 봉사활동 경험을 쌓음으로서 자기실현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담당할 자신과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5. 자원봉사활동의 효과

솔로몬과 바우어즈는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5)

① 자원봉사활동은 마음의 평화, 자기 존엄성, 지역사회 존중의 감정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긍지와 위치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아를 발달시킬 수 있다.

②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뒤에 얻는 성취감에서 자신감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③ 자원봉사활동은 좋은 일을 하면 그 보상으로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④ 자원봉사활동은 무언가 가치 있는 부분에 소속해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사회에서 높게 평가 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⑤ 자원봉사활동은 건전한 삶의 목적을 제시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켜준다.

⑥ 자원봉사활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며,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은 더욱 발전시키는 기

회를 만들어 준다.

⑦ 자원봉사활동은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흥미있고 활력있는 여러 가지 일감을 제공하기도 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과 일을 제시해 준다.

⑧ 개인의 올바른 판단력과 잠재적인 지도력을 계발해 준다.

⑨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의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⑩ 개인의 사고범위를 넓혀 유익한 새 친구와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⑪ 개인의 직책, 직종, 성별, 나이에 따르는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 준다.

자원봉사의 효과를 요약해 보면 자원봉사는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그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점차로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있고 보람되게 만들 수 있는 계기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게 한다. 또한 한 국가 내지 사회의 차원에서 볼 때 자원 봉사자는 공적 양심의 수호자로서 사회변화와 사회개발을 추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범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인류 공통의 적인 빈곤, 무지, 질병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고통과 사회적 부정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는 구제자라고 할 수 있다.

6. 자원봉사자의 문제점

가. 자원봉사자 측면

(1) 자원봉사자 스스로 전문적 분야를 개발하고 스스로 성장해 보려는 창의력이 부족하다.

(2) 자원봉사자 스스로 봉사의식 및 책임감 결여로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다.

(3) 취업·결혼·이사·자원봉사의 회의감 등으로 지속적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자가 많다.

이때, 그 사유를 기관에 연락하지도 않는다.

나. 수혜자 측면

(1) 사회복지시설

봉사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제공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를 지도·감독하는 수퍼바이저가 부족하며, 기관장의 이해부족으로 시설자체를 사회화하지 못하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발전시키려는 의욕이 약하다.

(2) 가정봉사

독거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에게 가정봉사를 할 때, 대부분은 고마움을 알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고마움을 모르고 더 큰 봉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봉사자를 봉급 받는 직업인으로 오해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3) 기타 사회복지관, 의료기관등

자원봉사자의 고귀한 봉사정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보조자 혹은 조수정도로 취급하고 잔심부름꾼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

다. 자원봉사자 양성기관 측면

교육기관별 교육과목·내용·시간 등이 통일되지 못하고 기관자체에 필요한 교과목 편성 일변도가 많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의 철학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교육교재 개발이 미흡하여 강의식 위주로 쉽게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시청각 교육·역할연극·그룹토의·경한 등이 적절히 편성되어야 한다. 한편, 재교육이 부족하여 봉사활동에서 생겨나는 문제점 및 봉사활동에서 생겨나는 문제점 및 봉사방법 등을 꾸준히 연구하는 기회가 적다.

라. 제도적 측면

(1) 자원봉사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총괄기구가 없이 지역, 기관,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합하여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 통괄하는 기구가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자원봉사자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 그곳에서 재등록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연계체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또한, 수혜자 측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자원봉사활동 시 자원봉사자에게 드는 비용, 교통비·식대·수혜자에 대한 간단한 선물비 등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상 자원봉사자 본인 스스로의 지출을 당연시하고 있다.

(4)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저변확대를 위한 포상이나 표창제도가 국가차원내에서 미비 되어 있다. 그리고 보상이나 승인방식은 현장 즉, 기관이나 시설마다 다르고 상호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성이 전혀 없다. 또는 지원체계의 혼란에서 오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

(5) 따라서, 가칭 자원봉사진흥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서의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7. 활성화 방안

이제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알기 시작한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수요처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도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자원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원봉사자의 재능과 시간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해보고자 한다.

1) 자원봉사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비공식 및 임의의 단체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제도의 본격 실시에 따른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으로 공동복지를 위한 공동참여 노력의 한 표현인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자원봉사활동은 주로 사회 복지서비스 분야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및 범위를 타 분야 및 일반시민에게까지 확대하여 일반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복지사업이 관

주도 형태의 일반적 구조로 이루어져 왔고,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사회복지비용의 절감측면에서 특히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적 성격을 퇴색 혹은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2)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홍보의 필요성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보다 자세하게 홍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센터 등 자원봉사교육 및 안내단체의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시설, 활동상황 등 제 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자원봉사활동은 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한정되어 특정한 계층 위주로 참여해왔다. 이러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체 실시 및 사회변화의 요구에 따라 자원봉사자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자아성취를 이루려는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현재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및 운영체제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의 인식 제고와 폭넓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한데 VTR테이프 등의 배포를 통한 홍보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홍보주체는 관공서, 즉 도나 시, 군,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과 자원봉사센터, 사회단체, 각 자원봉사 활동기관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3) 자원봉사활동 분야의 확대 및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 분야의 확대 및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동안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복지분야 즉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거택보호대상자와 이들 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대민 서비스를 실시하는 의료, 보건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잠재된 자원봉사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활용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자원봉사 요구자, 시설, 기관 등의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일정한 사전 검증작업과 내부 직원들간의 충분한 논의 후에 자원봉사자에게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다양한 계층의 인적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흥미, 적성, 나이, 성별, 직업 등 개별적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참여형태도 개인, 가족, 친구 그리고 집단참여 등으로 다양화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끼리 또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인적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자원봉사활동 코디네이터 또는 전문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 코디네이터 또는 전문지도자는 자원봉사와 활용기관의 내외적 유인 조건을 개발·지도·지원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각 지역 그리고 각 단위별 활용기관에서 보다 조직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받은 코디네이터나 전문적인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지원,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 기존 자원봉사자 양성기관들에 대한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양한 보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유지시키고 참여 강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금전적 보상제도로는 활동 중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비 금전적 보상제도로는 자원봉사활동의 경력인정, 자원봉사자들간의 친목행사, 활동 중에 사고에 대한 보상, 각종 시험에서의 우대 그리고 각종 포상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성취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보충적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상담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집단활동에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켜 기관의 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심어주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7)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중앙기구로서 자원봉사센터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기능을 제고시키면서 전부와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정부봉사센터의 직접 운영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자원봉사센터가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은 물론 창구를 일원화시키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8) 자원봉사활동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국가 전체차원 또는 각 지역차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원봉사자 양성기관 및 사회, 종교 단체, 기업체 그리고 각급 학교들과의 관계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지며, 자원봉사자 활동기관 및 시설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조직적,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거나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체 성격의 기구를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자원봉사활동의 총괄, 조성,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원봉사관리청'이 설립되어야 하며, 선심성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9) 시민운동의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 거버넌스의 실험장

자원봉사활동을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효과적인 방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후원으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상담·조언·격려 등으로,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노력봉사로, 시민운동의 활성화에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참여외에는 왕도가 없다.

1국민 1시민단체가입 운동, 한달에 하루 자원봉사 운동을 범시민적 운동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봉사의식이 육성되도록 하는 일상적인 교육 및 훈련, '자원봉사 대축제'와 같은 많은 이벤트 행사와 사회문제를 목표로 하는 운동, '자원봉사의 달, 자원봉사의 날'제정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언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언은 단시간에 또 몇몇 사람이나 특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행정조직과 자원봉사에 관련된 단체, 시설, 기관들이 서로 역할과 수행하고 상호 협조하며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공무원들의 솔선 수범으로 학생, 회사원,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정착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8. 사례연구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 합창올림픽의 자원봉사 서포터즈 활동

1)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 모집 : 31개 직종 31,037명
- 활동 : 16,080명(소요인력 14,435명 대비 111%)
 - ▷ 통번역 활동 지원 3,307명 ▷ 경기운영지원 3,927명
 - ▷ 기술업무 지원 1,267명 ▷ 행정업무 지원 1,800명
 - ▷ 서비스 업무 지원 2,606명 ▷ 의무 등 기타 1,528명
- 주요 활동실적
 - ▷ 소양교육 : 총 10회, 12,859명
 - ▷ 봉사활동 : 2002.7월부터 통역 등 31개 직종 6개 분야 15천여명 참여

2) 부산합창올림픽

- 구성 : 7개 분야 308명
- 활동 : 통역, 숙박수송, 사무지원, 행사진행, 공항영접, 호텔지원, 행사진행 등
 - ▷ 참가합창단 인솔 통역 95 ▷ 수송 지원 50 ▷ 상황실 운영 18
 - ▷ 합창 경연 지원 72 ▷ 만남의 콘서트 12 ▷ 보도업무 지원 3

- ▷ 캐터링 업무 지원 6 ▷ 공항영점 2 ▷ 본부호텔 업무 4
- ▷ ICOC지원 6 ▷ 각종 행사 지원 40명 등

3)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

- 모집 : 32개 직종 3,557명
 - ▷ 지원 업무 : 경기운영, 통역, 성화봉송, 시상, 안전통제, 행사지원 등
 - ▷ 참여대상 : 학생, 단체, 주부 등
- 활동 : 경기안내, 선수단 통역, 성화봉송지원, 시상지원 등

<아시안게임 봉사자, 서포터즈>

□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역사적 시점에서 새 천년에 처음으로 열리는 37억 아시아인의 화합과 평화의 제전

- 부산아시안게임은 「아시아를 하나로 부산을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44개 OCA회원국 모두가 참가하였으며,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21세기 최초의 신생독립국 동티모르가 참가한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의 이벤트 행사

□ 특히, '4만 부산서포터즈'의 활약은 37억 아시아인을 감동시켰으며, 민간외교의 최첨병 역할로 「축제 의 장」으로 승화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속에 참가국별로 시민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선수단에 대한 환영, 경기응원, 환송행사 등을 전개, 세계도시부산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 ▶ 44개국 39,785명(임원 9120, 회원 38,875)
- ▶ 선수단 환영행사 44개국 4,335명, 경기장 응원 1,218회 103,250명 등

- '시민 서포터즈'가 주도한 응원과 활동은 「자발적 역동성」을 과시, 화합으로 승화하여 대회의 성공개최 계기

□ '성공대회' 원동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

- 수준 높은 시민의식의 열정이 성공대회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시민대통합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아시아드로 승화

□ 따라서 이번 아시안 게임은 대회사상 처음으로 사상과 이념, 종교, 빈곤의 벽을 넘어 '화합과 평화의 아시아드'로 평가되고 있음.

□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스포츠 제전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루어 냈고 남북간 '공동성화채화'로 '민족화합을 완성하는 의미'와 함께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남북교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움.

- AG성화를 한라산과 백두산에서 동시 채화하고 남북분단의 상징인 임진각에서 합화 함으로써 '성

화'라는 대회의 상징을 '통일'이라는 이미지로 승화

- ◇ OCA전회원국 참가를 통한 아시아인의 화합과 평화 대제전
- ◇ 서포터즈의 응원과 활약은 민간외교의 '최첨병'역할 수행
- ◇ 승용차 2부제 등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민통합의 자긍심 확산

□ 새천년에 처음 열리는 아시안게임은 대회사상 처음으로 사상과 이념, 종교, 빈곤의 벽을 뛰어넘은 37억 아시아인 '화합과 평화의 아시아드'로 승화발전

-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44개 OCA회원국 모두가 참가하였으며
-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신생독립국 동티모르도 참가하는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의 이벤트

□ 특히, 「시민서포터즈」 활동은 민간의 최첨병 역할 수행 향후 국제친화교류의 계기를 마련

- 지난 월드컵에서 한국인의 저력과 단결력을 보여준 응원의 함성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서포터즈의 응원과 활동으로 되살아나면서 '민간외교관'의 역할 수행
- 선수단 도착 환영행사(44개국 4,335명), 환영 오·만찬 32개국 3,033명), 경기장 응원(1,518회 103,250명) 등 다양한 활동과 지원은 국제친화교류의 교두보 마련
-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시민 서포터즈의 활약상은 대회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대회성공의 큰 밑거름 역할
- 기념품 전달 : 40개국 116종 14,641점(419,220천원 상당)

□ 시민서포터즈 활동은 세계도시 부산의 위상 제고

- 시민의 참여를 통한 AG성공개최 계기 마련했으며, 경기장 응원 주도로 참가선수의 경기 기량 향상에 도움
- 각급 기관·단체, 기업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계기 마련, 서포터즈 활동들이 참가국에 소개됨으로써 부산 사람의 훈훈한 인심을 전하는 계기가 됨.
- 경기가 있는 날이면 각국 선수단의 만남을 통해 부산시민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등 부산 알리기에 전력

□ 서포터즈가 주도한 응원과 활동은 「자발적 역동성」을 과시하였으며, 향후 세계도시 NETWORK 도모하는 계기

□ '성공대회'원동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

- 부산을 찾게 될 손님맞이 준비를 위하여 친절하고 질서있는 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문화시민운동」 전개로 시민적 통합분위기 조성
- '보이지 않는 사랑'의 대명사 '자원봉사자' 활동(통역 등 31개 직종 2만 여명 참가) 활동은 성공대회의 견인차 역할
- 「1단체 1경기 관람운동」은 각종 사회단체·기업 등에서 자발적으로 참여, 경기참관 응원활동·

진료활동·환경캠페인·이벤트 실시·통역 등(298개단체 190천명)을 통한 시민화합과 공동체 의식 고양

□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승용차 2부제 참여는 대회성공의 밑거름

○ AG기간 중 실시한 승용차 2부제 평균 95%이상 동참은 어느 국제 대회보다도 시민의 자존심을 과시,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회의 원활한 진행에 일조

- 승용차 2부제 : 평균 준수율 95.3%, 차량주행속도 15.4% 향상
- 셔틀버스 운행 : 8개 노선 426대 (총 이용객수 98,075명)

□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 시민참여 및 통합의 장을 마련하여 '화합아시아드'로 승화

- ◇ 부산아시안게임 북한 참가는 남북교류의 획기적인 계기
- ◇ 남북공동 성화채화, 동시입장 등 민족사적 의미의 이정표 마련
- ◇ 개최도시 시장 만경봉호 방문, 북측 응원단 공연은 화합무드 절정

□ 부산AG성화는 통일·화합의 메시지

○ AG성화를 한라산과 백두산에서 동시 채화하고 남북분단의 상징인 임진각에서 합화함으로써 '성화'라는 대회의 상징을 '통일'이라는 이미지로 승화

- 성화채화(9.5) -> 성화합화(9.7 임진각) -> 국내방송 9.7~29(22박 23일) 904구간, 4,294Km
- 한반도의 통일이 곧 아시아의 평화라는 상징적 메시지

□ 북한의 대규모 참여는 남북간 민족화합에 기여하고 남북교류의 획기적 계기와 민족사적 이정표를 세움

- 분단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북한이 대규모로 참여함으로써 통일화해무드조성
- 선수단 18개 종목 318명, 응원단 293·기자단 등 68명 참가
- 특히, 개최식 입장 시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이어 또다시 남과 북이 같은 단복으로 한반도를 앞장세워 동시입장 하였고, 성화 최종주자로 남(하형주)과 북(계순희)이 동시 성화함으로써 아시안 게임이라는 스포츠의 장을 통해 전 세계에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과시

○ 또한 시기적으로 신의주 특구가 지정되고 남북간 철도가 연결되는 개방무드에서 향후 남북교류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

□ 북한의 만경봉호가 응원단을 싣고,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부산에 입항하여 아시안게임 기간동안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는 모습은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

○ 북한참여 경기는 북한응원단과 함께 남과 북이 한마음이 되어 공동 응원하는 등 경기장 열기가 고조, 시민들의 따뜻한 동포애로 남북 일체감 조성파 화해무드가 확산

- 북한 응원단
- 참가규모 : 293명 (취주악대 150명, 응원단 143), 승무원 등 68명
- 체류기간 : 2002.9.28~ 10.15(18일간)
- 숙박장소 : 만경봉 92호 내 (9,672톤급), 다대포항 계류

○ 또한 북한 응원단과 서포터즈 (10개 단체 2,000여명)인 ‘아리랑 응원단’ ‘갈매기응원단’은 ‘통일조국’의 열기 고조시켰으며,

- 북한의 취주악대와 응원단은 가는 곳마다 인기와 화제를 불러일으켜 ‘통일아시아드’의 절정을 이루었다.

□ 앞으로 통일아시아드의 열기를 통해 남북간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대포에 평화통일 공원 조성 결정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화합과 우정의 대회

□ 감동의 제전

- 2002 부산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는 21세기 최초로 열린 장애인 스포츠 제전으로서, 불굴의 용기와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한계에 도전하는 감동의 제전

- 2002부산 아태 장애인경기대회는 『평등을 향한 힘찬 도전』이라는 이념과 화합과 우정, 사랑과 나눔, 청결과 친절이라는 슬로건 아래,

- 41개 국가에 2,417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였으며 각종 시설과 대회 준비상황 평가결과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가 공인한 최초의 대회

- 대회기간 중 개최된 Fesipic총회에서 신생독립국 동티모르와 몽골 등 5개국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 결정되어 아태지역장애인 스포츠의 국제교류 및 대중화 전기 마련

□ 서포터즈 활동 및 친절한 손님맞이

- 지난 AG대회기간 중 활발한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37억 아시아인을 감동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선수들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선수들을 보살피는 등 민간 외교관의 역할 수행

- 시민들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참가국별 시민 서포터즈를 결성하여 입국 순간부터 귀국하는 순간까지 환영, 대회용품의 지원, 응원, 관광안내 및 환송 행사를 전개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선수단과 돈독한 우의를 다져 국제도시 시민의 성숙한 역량을 과시

▶ 서포터즈 : 40개국 7,590명

▶ 활동상황 : 선수단 환영, 경기응원 등 연인원 40,924명 활동

- 이러한 서포터즈의 활약 외에도 교통 및 관광, 숙박 및 요식업 종사자는 물론 모든 시민들이 우리 부산을 찾아온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인정어린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심는 계기가 되었음.

□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의식은 FG성공의 원동력

- 월드컵 축구경기와 AG를 치르면서 축적된 시민 역량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개·폐회식차 량 2부제 술선 참여하고 외래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여 FG성공의 원동력이 되었음.

- 시민, 학생,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 등에서 『1인 1경기 관람하기』 운동을

전개, 경기장의 열기를 북돋웠으며, 특히 초·중·고교 등 각급학교에서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경기를 단체 관람하고 각 대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등 연인원 60여만의 시민, 학생들이 경기장을 찾았음.

□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역사회의 능동 참여

- 시민서포터즈 활동과는 별도로 47개소의 사회복지관이 1개 참가국을 담당. 선수와 임원,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고 수시로 선수촌을 방문. 음료와 간식 등을 제공. 민간 유대 강화.

- 장애인단체, 시민, 공무원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 이동 봉사대』를 구성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는 선수와 임원들을 수송하여 교통편의 증진도모

▶ 장애인 이동 봉사대 : 차량 102대 (인원 137명), 연인원 1,722명 수송봉사

▶ 활동내역 : 선수 및 임원 등의 요청에 의하여 무료 수송봉사 활동전개

□ 불우·소외계층 개·폐회식 초청으로 나눔의 FG실현

- FG의 실질적 주인공이라고 할 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범시민과 국유공자 등 1만 2천명을 개·폐회식에 초청하여 『사랑과 나눔의 대회』 실천

- 각 구(군)에서 초청 대상자를 수송, 안전한 개·폐회식 관람 도모

<민간활동 사례>

▲ 아시아드지원협의회

○ 취지와 주요활동

지원협의회는 400만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후세에 길이 남을 2002부산 아시안 게임 성공을 위한 범민간결집체로 2002AG전유치위원을 비롯하여 경제계, 시의회, 민간, 시민단체, 학계, 체육계 및 관련단체, 언론계, 경제관련단체, 해외동포, 부산주재영사, 부산정주외국인 등(고문 47명, 이사 142명) 각 계 각층 시민참여로 AG의 성공개최를 염원하며, 각종사업 전개와 지원하는 아시안게임 후원공식민간 지원단체임.

그 동안 지원협의회에서는 2002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성공을 위해 부산아시아드시민대학 시민강좌(기수별 2개월 과정, 7기), 부산아시안게임 홍보시민봉사단발족, AG북한참관단지원기금마련 후원의 밤, 부산아시안게임후원명인서화전, 타천문 축제, 아시아드청소년대행진, D-day300기념 시민걷기 및 릴레이 대회, 총 10회의 아시아드 포럼개최와 아시안게임 범국민 총력화를 위한 부산지도총 선언, 그리고 아시아드주경기장 관람석의자각계운동, 60여회의 아시안게임 시민홍보 등 아시안게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음.

○ 주요사업활동

■ 갈매기응원단(북한)활동, 아시아드시민대학, 자원봉사교육 등 AG성공을 위한 분위기 확산 및 자원 봉사사업

■ AG성공을 위한 각종 후원사업·위탁사업

■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시민네트워크 결성 (PAS), 아시아패밀리 운동, 북한교류방문 등 아시아 우정, 친선교류사업

■ 각계 시민참여와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시민참여사업

■ 아시아드재단설립 등 국제교류거점사업

■ 아시아 주요 경제인·스포츠산업 교류회의, 포럼, 심포지엄 개최 등 아시아 민간경제교류사업

■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사업

○ 부산아시아드대학

■ 취지

지원협의회 산하에 부산아시아드 대학을 상설하고 전국적으로 명성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2개월 과정의 시민강좌를 개최했음. 제1기부터 제7기의 시민강좌는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서 1100여명을 배출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음. 수료생들은 아시안게임자원봉사의 핵심적 역할을 했음. 또한 시민홍보봉사단을 구성하여 봉사의 기수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포스트아시아드 사업 및 각종 행사에 활동중임.

■ 아시안게임 과목

- | | |
|------------------|---------------|
| - 자원봉사 | - 아시아의 음악과 미술 |
| - 아시아를 움직이는 사람들 | - 아시아 국제매너 |
| - 쉽고 재미있는 어학, 영어 | - 아시아개관 1, 2 |
| - 아시아문화기행 1, 2 | - 아시안게임 감상법 |
| - 아시안게임과 지역경제 | - 아시안게임과 남북관계 |
| - 아시아관광, 음식 | - 현장 견학 등 |

<참고 : 인터넷 자료>

' 아시아드 꽃 ' 1만5,000명이 된다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여부는 우리손에 달렸다.□

37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부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의 마음도 바빠졌다.

[부산아시안게임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미디어환영리셉션 참가 대상자들에게 보낼 초청장을 정리하고 있다.]

선수와 임원 조직위 시민들의 손과 발이 돼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자원봉사자들은□아시아드의 꽃□으로 불릴 만하다.

부산 아시안게임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는 전체 소요인력 2만5천여명의 60%인 1만4천6백여명. 예비인력을 포함하면 1만7천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투입된 현장을 보면 아시안게임의

성패가 이들에게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직종은 31개 분야. 경기보조가 3천9백여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통역 3천1백 70여명, 환경정리 1천8백50여명, 사무지원 1천8백여명, 일반안내 1천2백여명 등이다.

번역 전광판 기록계측 기상 사진촬영 후생 매표 등 외국에서 방문하는 VIP접대에서부터 선수촌 숙소 내 청소까지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여기에는 부산 외 지역에서 참여한 자원봉사자 3천5백여명과 재외동포 70여명, 통역을 위한 외국인 자원봉사자 38명도 포함돼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지난해 초 처음 신청을 받을 때만해도 인터넷과 광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어 걱정을 많이 했으나 접수를 마감한 결과 3만여명이나 신청했다□며 □역대 대회 참가경력과 소양교육 이수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했다□고 말했다.

조직위가 자원봉사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참여동기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만1천여명 가운데 60%가 넘는 7천4백여명이 본인 스스로 신청했다고 응답, 시민들의 높은 열기를 보여주었다.

참가 신청자를 받은 뒤 이들에게 기본적인 소양과 맡은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명감을 심어주는 것도 큰 과제였다.

조직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 5차례, 인근 개최 도시 5차례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소양교육을 실시, 대회의 전반적인 안내는 물론 근무요령과 정신교육을 통해 사명감을 심어주는데 주력했다.

지난 2월에는 각 직무별로 구분해 63개 단위사업별로 인원을 배치한 뒤 본격적인 직무교육과 현장 적응훈련을 통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사명감과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교육불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의향을 거듭 확인하고 설문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외국의 인사들을 맡는 의전통역요원은 전문업체의 사전 시험을 통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어권 해외동포들을 주로 배치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2월 25일 발대식을 가진 뒤 지금도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대회가 끝나면 참여증서를 받는 것 외에 아무런 대가도 주어지지 않지만 굵은 일을 도맡아 대회를 이끄는 숨은 일꾼들이다.

조직위 객사옥 인력지원단장은 □조직위만으로 대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대회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시민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AG 자원봉사자 74.8% '기회되면 다시 참여'

부산시는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 4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4.8%가 다시 참여할 뜻을 밝혔다고 7일 밝혔다.

또 92.6%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평가했고 이를 통해 부산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72.8%였다. 자원봉사 참여동기에 대해서는 부산발전을 위해(26.0%), 자기성장(16.8%), 사회경험(16.5%) 등 순이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AG)에서 각국 선수들이 거머쥔 영광과 기쁨만큼이나 경기장 곳곳에서

남몰래 흘린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땀방울도 빛났다.

대회 성공의 '숨은 공로자'인 자원봉사자들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부산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참에 1만6천여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이 같은 열정을 한 차원 높은 '자원봉사 선진도시 부산'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간의 대회 동안 통역 경기보조 수송 전산 등 31개 분야에서 일한 자원봉사자는 모두 1만6천여명.

이들 가운데 1만482명이 지원서에서 '주위의 권유나 학교 추천, 언론매체 등을 통해 스스로 참여를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평균연령은 31세이며, 남녀비율은 1대2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AG가 부산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치른 국제대회인 만큼 자원봉사자 운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냈다.

자원봉사자들은 고압적인 조직위 관계자들의 태도와 학생들의 경우 학교측의 배려 부족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고 있다. 조직위 측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한 인센티브도 '자원봉사 참여증서' 발급과 예비군훈련 면제 정도에 그쳤다.

부산 모 대학교 3학년 김모(21·여)씨는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인데도 교수님이 출석 이외에는 어떠한 배려도 해주지 않아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면서 '조직위 소속 일부 공무원들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질려 증도에 포기한 친구들도 많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행사 때마다 '소집'과 '해산'이 되풀이되는 탓에 자원봉사를 위해 이동을 많이 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자원봉사 창구를 일원화하는 전문인력 통합관리체계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회성 자원봉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행사 이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부산 전체의 자원봉사 인력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데는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수억원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 등 AG에 참여한 3만1천여명의 소중한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아직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부산시는 '포스트 아시아드 10대 사업'의 하나로 '부산 발런티어'를 발족시키겠다고 15일 발표했다.

부산AG 자원봉사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AG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로 이들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할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부산시와 부산AG조직위 등 관계기관은 자원봉사자 관리업무 이관을 위한 협의를 아직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활용 계획조차 세워놓지 않은 상태여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부산시 기획관실 관계자는 "'부산 발런티어' 계획은 전문가의 조언과 사례연구 등을 거쳐 예산을 편성한 뒤 내년부터 실행에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부산AG로 한 데 뭉친 부산시민 자원봉사자들의 결집력을 도시 발전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아태장애인대회, 장애인 자원봉사자들 성공 대회 앞장

2002 부산아태장애인대회에 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대회 성공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장애인들로 구성된 '귀동이 자원봉사단'은 지난 1년간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에게 대회를 알린데 이어 지난 26일 개막식 때는 경기장 앞에서 홍보책자를 나눠주며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구했다.

또 풍물놀이까지 벌이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데 이어 요즘에는 경기장마다 20여명씩 조를 맞춰 방문, 선수들의 힘찬 도전을 격려하고 있다.

귀동이봉사단 뿐만 아니라 이석화씨와 김도형씨 등 5명의 장애인들도 기술지원부에 배속돼 전산업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금정체육공원에서 테니스경기 전산업무를 맡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 이씨는 "동료 장애인을 위해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면서 "장애를 극복하고 활발하게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니 나 역시 힘을 얻고 있다"고 뿌듯해 했다. (부산=연합뉴스)

아시아를 감동시킨 4만 부산서포터스

부산시민 서포터스 4만명이 아시아 각국 참가 선수단은 물론 37억 아시안을 감동시켰다.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 요소로는 1만7천여 자원봉사자 이외에 각국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구성된 4만여 부산시민 서포터스가 단연 손꼽히고 있다.

대회 초반부터 부산시민 서포터스는 각국 선수단과 완전히 '한몸'이 돼 경기장을 부지런히 찾아 다니며 북과 팽과리 등으로 목이 터져라 응원전을 펼쳤으며 경기가 끝나면 유명 음식점으로 초대, 부산의 먹거리까지 소개했다.

필리핀 서포터스는 지난 8일 금정체육관에서 열린 필리핀과 중국과의 농구경기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필리핀 연수생들과 필리핀 대학 치어리더 40여명과 함께 열렬한 응원전을 펼쳤고 9일 저녁에는 필리핀 선수단을 연제구 소재 식당으로 초청, 만찬을 베풀고 손목시계를 선물했다.

레바논 서포터스는 지난 7일 해운대 달맞이집에서 레바논 선수단을 초청, 식사를 제공한 뒤 우산과 수건 등을 선물했고 예멘 서포터스도 지난 9일 벅스코 식당에서 예멘 재경부 부 장관과 선수단 단장 등 선수단 주요인사를 초청해 만찬을 들고 손목시계와 운동화를 선물했다.

홍콩 차이나 서포터스와 오만 서포터스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대회 기간 홍콩 차이나 선수들의 입국 환영행사에서부터 개회식 주요 장면, 선수단 경기장면, 만찬 장면, 서포터스 활동 상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정성이 가득 담긴 사진첩과 동영상CD 등을 기념품으로 마련했다.

특히 홍콩차이나 서포터스는 동영상CD에 부산의 주요 관광명소를 수록해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나라를 맡은 서포터스들의 활약은 더 돋보였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서포터스는 선수단에게 식사 초대는 물론 손목시계와 토산품 등 각종 기념품을 제공했고 카자흐스탄 서포터스는 선수단을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으로 초대하는

산업시찰을 주선했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서포터스는 선수단 150명을 공연장으로 초청,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시립무용단의 공연을 관람토록 하는 등 '부산 문화'를 소개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부산시민 서포터스들의 대접을 받은 각국 선수단의 화답도 잇따랐다.

우즈베키스탄 NOC는 자국산 텐산곰 2마리를 선뜻 부산시에 기증했고 몽골 IOC위원은 부산시를 방문, 안상영 부산시장에게 서포터스의 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또 이란 부통령은 자국에서 이란대 카타르의 축구 경기 당시 서포터스들의 응원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본 뒤 이란 문화부 한국대표부를 통해 사의를 표시해 왔다.

부산 국제영화제... 자원봉사도 '부산'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영화제의 보이지 않는 공신은 자원봉사자다.

통역 서비스부터 극장 안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다. 올해에도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4백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남포동, 해운대 일대에서 영화제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땀을 흘릴 예정이다.

여성의 비율이 76%로 남성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10대부터 70대까지 고른 연령층에서 영화제를 성원하고 있다고 조직위측은 설명했다.

올해 최고령 합격자는 김서민(71)씨. 지난 30년간 생명의 전화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왔던 그는 이번 영화제에서 초청 손님을 돌보는 게스트 서비스 1팀에 소속됐다. 일본어에 능통해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명예통역원으로 일하고 있다.

69세의 김상생 씨는 김서민씨에게 최고령이란 타이틀을 넘겨주었지만 지난 6년간 부산영화제를 지켜온 산증인이다. 게스트 서비스2팀에 참여하고 있으며, 10회까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4년간 배차 담당으로 일했던 윤재원(33)씨는 올해에도 배차 부문을 책임진다. 그는 "그간 쌓은 노하우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영화제 기간 중 매일 자기 회사 제품을 상자채 가지고 와 스태프 및 봉사자에게 나눠주는 인심을 보여 '켈로그 아저씨'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또 고교생, 중학생 두 자녀를 둔 이근희(41)씨는 일본어가 능통한 전업 주부로 "영화제를 위해 그간 틈틈이 예술영화를 감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산영화제 김희성 홍보팀장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특성상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영화제 운영에 필수적"이라며 "그들의 열정으로 오늘의 부산영화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봉사단인 아미리코를, 그리고 최근 부시는 9.11테러 후 자유수호봉사단을 각각 창설했다.

해비타트운동을 벌이는 카터의 퇴임 후 활동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또 97년 생존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필라델피아에 모두 모여 자원봉사 정상회담을 열고 길거리로 나서 자원봉사의 모범을 보인 것도 보았다.

토론 1 _____

변 상 준 (2002 부산아시아드지원협의회 사무국장)

토론 2 _____

이 강 현 (볼런티어 21 사무총장)

토론 3 _____

김 용 식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시민지원협의회 운영본부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와 자원봉사

변 상 준

사) 2002부산아시아드지원협의회 사무국장

I. 서

◦ 자원봉사는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체 의식의 해체의 극복과 현대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이며, 사회구성체의 일원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다.

◦ 이런 의미에서 2002년도는 많은 국제행사로 인해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봉사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부산아시아드안계임과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역대 규모면에서도 최고의 대회였던 만큼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 합창올림픽, 비엔날레 등 다른 국제적인 행사도 같이 개최되어 부산개항 이래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로 했던 한해였다.

◦ 각종 경기나 행사에서 각국 선수 및 참여자들의 영광과 기쁨만큼이나 경기장 및 행사장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열정은 국제적 행사 성공의 실질적인 공로자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행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재산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II. 자원봉사자의 활동평가와 문제점

◦ 제14회부산아시아드경기대회는 “아시아를 하나로 부산을 세계로(One Asia, Global Busan)” 슬로건 아래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44개 OCA회원국 모두가 참가한 최대규모였으며,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평등을 향한 힘찬 도전(A Challenge towards Equality)”이라는 이념과 화합과 우정, 사랑과 나눔, 청결과 친절이라는 슬로건 아래 41개 국가 2,417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부산개항이래 최대의 행사였다.

◦ 이와 같은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산 아시안게임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는 전체 소요인력 2만5천여명의 60%인 1만4천6백여명. 예비인력을 포함하면 1만7천여명 이었다. 이들 자원봉사자의 직종은 31개 분야로 경기보조 3천9백여명, 통역 3천1백70여명, 환경정리 1천8백50여명, 사무지원 1천8백여명, 일반안내 1천2백여명 등으로 번역, 전광판, 기록계측, 기상, 사진촬영, 후생, 매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방문하는 VIP접대, 선수촌 숙소내 청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 이와 더불어 “부산시민서포터즈”를 구성하여 AG는 44개국 39,759명이 참여하였고, FG는 40개국 7,590명이 참여하여 환영·환송행사, 경기응원, 만찬 등을 통해 민간 외교사절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 뿐만 아니라 AG조직위가 자원봉사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참여동기를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 1만1천여명 가운데 60%가 넘는 7천4백여명이 본인 스스로 신청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74.8%가 다시 참여할 뜻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들을 활용하고 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이 필요하다.

◦ 그러나 부산AG가 부산항 개항이래 처음으로 치른 국제대회인 만큼 자원봉사자 운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 첫째는 고압적인 조직위 관계자들의 태도이다.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데 있어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로 인식하는 조직위 관계자들의 태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반발을 사 증도에 그만두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 둘째, 자원봉사자들 중 대학생들의 참여함에 있어 지역대학과 AG조직위간의 원활한 협력체제의 부재로 학교측의 배려가 부족하여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하였다. AG조직위 측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한 인센티브 역시 '자원봉사참여증서' 발급과 예비군훈련 면제 정도였다.

- 셋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행사 때마다 '소집'과 '해산'이 되풀이되는 탓에 자원봉사를 위해 많은 이동과 적절한 직무배분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원봉사자가 과로사 하는 불행한 일도 초래하였다.

- 넷째, 향후 인력관리의 부재이다. 행사이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전문인력 통합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나 부산전체의 자원봉사 인력을 통합하고 관리하는데 관계기관의 협조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Ⅲ.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자원봉사전문인력의 통합관리를 위한 창구 단일화

- 자원봉사의 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성을 띠지 못하고 '일회성 자원봉사'로 그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단일화된 창구가 필요하다.

- 단일화된 통합관리 창구는 각종 행사 이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부산 전체의 자원봉사 인력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통합관리창구는 자원봉사자들의 능력, 기능, 업무별 분류를 통해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행사 본연의 업무만 전담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부산시는 '포스트 아시아드 10대 사업'의 하나로 '부산 발런티어'를 발족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부산AG 자원봉사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AG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AG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모든 자원봉사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현재의 부산시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 기구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 아닌지도 우려되는 점이다.

◦ 정부의 예산 및 정책적 지원

-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통합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이 기구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현재의 행정 주도의 자원봉사자 관리체계를 민간주도로 전환해 자원봉사가 명실상부한 시민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환경·예술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자원봉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부여

-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마련을 위해 자원봉사자 스스로 전문적 분야의 개발하려는 창의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봉사의식 및 책임감의 제고로 중도탈락자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이번 아시안게임때에도 통역봉사자들이 제대로 통역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를 단순히 업무보조자 혹은 조수정도로 취급하여 잔심부름꾼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 자원봉사자의 참여의사를 꺾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높은 사회적 의식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자원봉사활동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과 자원봉사활동 시 자원봉사자에게 드는 비용, 교통비·식대·수혜자에 대한 간단한 선물비 등의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기진작 및 저변확대를 위한 포상이나 표창제도 마련, 자원봉사활동의 경력인정, 지역신문이나 회보에의 게재, 지역TV나 라디오에서의 소개, 자원봉사자들간의 친목행사, 각종 시험에서의 우대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유지시키고 참여 강도의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 언론의 역할 및 홍보 강화

- 언론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는 입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언론 스스로 자원봉사를 진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봉사에 높은 가치를 두는 공적인 환경조성과 자원봉사의 지속적 기사화, 구체적인 봉사활동 및 참여방법의 제시, 지역 사회 자원봉사 활동 캠페인 지원 등을 해야 할 것이다. 단적인 예로 1992년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미국의 '메이크 어 디퍼런스 데이(Make A Difference Day)'는 USA Weekend가 각종 기사를 통해 시민참여를 요청한데서 이루어졌다.

-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봉사센터는 자원봉사교육 및 안내단체의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시설, 활동상황 등 제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제공하여 무엇이 필요하며,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자원봉사활동분야의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

- 그 동안의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거택보호대상자를 보호하는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번 2002년도 부산의 국제행사에서 보듯이 국제경기대회, 국제영화제, 합창올림픽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요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확대된 자원봉사부분에 대한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으며, 자원봉사의 개념도 확대·변경되고 있어 이들을 전담할 수 있는 연구센터의 설립도 염두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흥미, 적성, 나이, 성별, 직업 등 개별적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참여 형태도 개인, 가족, 친구 그리고 집단참여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인적자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상류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선진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하버드대의 자원봉사센터 필립브룩스하우스(PBH) 벽에는 루스벨트, 케네디 등 하버드 출신 역대 대통령들의 봉사활동 경력들이 새겨 놓았으며, 케네디는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존슨은 국내봉사단 VISTA를, 닉슨은 자원봉사법을, 클린턴은 미국봉사단인 아메리코(AmeriCorps)를, 그리고 최근 부시는 9.11 테러 후 자유수호

봉사단 (USA Freedom Corps)을 각각 창설한 것을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

IV. 결

- 올해는 유달리 부산에서의 국제행사가 많았다. 앞으로 개방화, 국제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더욱 더 많은 국제적인 행사가 개최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더 많은 자원봉사자의 필요할 것이다.

- 그러므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들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통합·교육시킬 수 있는 전담기구가 무엇보다 절실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지역발전=국가발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와 자원봉사

이 강 현

볼런티어 21 사무총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와 자원봉사

김 용 식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시민지원협의회 운영본부장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1. 3대 국제대회의 성과

부산 개항 100년이래로 부산에서 4대 국제행사(WC, AG, CO, FG)를 성공리에 치루게 된 점은 과히 놀라울만한 일이다. 그만큼 부산시민의 열정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만방에 알려어져 부산의 시민 위상을 한층 높이면서 새로운 자긍심을 갖게 된 것이 큰 수확으로 받아들여진다. 한 해가 매일 국제경기로 여길만큼 7년 전부터 준비하여 온 결과가 이제 2016년 세계올림픽 유치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4개 국제경기대회의 훌륭한 성과의 결과인 것이다. 이중 월드컵을 제외한 3대 국제경기는 부산시가 주·간접으로 관여하고, 통제하면서 치루어진 경기인만큼 AG·CO·FG 3대 국제행사의 의미는 다대하다 하겠다.

이번 대회의 의미를 아시안게임에서 찾아본다면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은 화합아시아드, 문화아시아드, 통일아시아드, 경제아시아드, 환경아시아드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부산시 자료)

1) 화합아시아드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새천년에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3억 아시아의 화합과 평화의 제전이 되어 “아시아를 하나로 부산을 세계로”라는 슬로건에 맞는 44개 OCA회원국 모두가 참가하였고, 또한 자원봉사자가 31개 분야에 2만여명이 참가활동을 하였으며, ‘1시민 1경기관람’에는 289개 단체에서 19만여명이 관람하였다.

2) 통일아시아드는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남북간 공동성화 채화가 민족화합을 완성하는 의미와 함께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남북교류에 이정표를 세웠으며, 아시안게임기간내 ‘통일조국’을 연호하며 북측 응원단과 하나가 되는 시민의 모습은 ‘남과 북’이 한 핏줄로 평화통일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를 세계에 널리 각인시켜 역사적으로 남을 일이었다.

3) 문화아시아드는 대회 기간중 부산 비엔날레와 「아시아 위크」 등 총 106건의 문화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개·폐회식 때 부산의 특색

과 역사적 배경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만남」과 「귀향」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행사가 되었다.

4) 경제아시아드는 IMF이후 가장 경제여건이 나쁜 부산을 이번 국제 경기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발돋움하게 하였으며,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규모면에서 '88서울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회이나 경기장 시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경기장을 개·보수 활용하는 등 알뜰대회로 개최하였다.

5) 환경아시아드는 내사랑부산운동활동을 통해 그 동안 꾸준히 전개하여 온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어 삼지공원조성, 담장허물기, 기관·단체 꿈나무동산 조성 등을 통한 대회 분위기에 전 시민이 적극적인 참여로 부산시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기반이 되었다.

이상과 같은 성과의 결과는 시민여론 조사에서 잘 나타나 아시아게임 전반에 대한 시민적 평가에서 “성공적이다(63.0%), 보통이다(33.1%), 실패(3.9%)”로 대부분 아시안게임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2. 4M과 자원봉사 활동

이러한 대회의 성공에는 사람, 물자, 자금, 운영의 하모니가 되어 이룩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이중 가장 중요한 사람(man)은 바로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이다. 운영요원은 각 조직위원회와 부산시에서 파견나간 공무원들이며, 부산경찰청, 35사단 등 지원단체 인원들로서 그들의 노고는 여기서 접어두고, 이러한 대회의 성공에는 자원봉사의 활동의 역할이 성공의 지름길이 됨을 부인 못할 사실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서포터즈로 활동한 인원은 45개국 39,788명으로(임원 9,120, 회원 38,875명) 선수단 환영행사 44개국 4,335명, 경기장 응원 1,218회 103,250명 등으로 자발적 역동성을 발휘하여 대회의 성공개최의 계기가 되었다.

자원봉사자는 선수촌 숙소 청소를 중심으로 통역 등 31개 직종 2만여명의 봉사자들이 자신의 몸이 쇠잔하여 쓰러지면서까지(오인수 사망 43세 / 박순이 뇌졸중 53세) 자기의 책임을 다하였다. 또한 1단체 1경기 관람에는 각종 사회단체, 기업체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경기참관, 진료활동, 환경캠페인, 통역 등에 298개 단체에서 190천명이 참여함으로 시민화와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켰다.

또한 FG경기에서는 장애인 이동봉사대 활동이 두드러져 차량 102대로 137명의 대원(이중 80%가 장애인)이 11일 연 1,722명이 동원이 되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더욱 부산지역의 47개 복지관이 주축이 되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경기관람 참가와 개·폐회식에 열정적인 참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눈물겹도록 대회가 성공으로 평가받는 큰 힘이 되었다.

3.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

자원봉사자는 이번 대회의 꽃으로 칭찬이 자자하고 누구나 놀라우리만큼 격려를 아끼지 않았음에도 발전적인 측면에서 활동내용을 분석해보면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자원봉사자라고 이름은 붙여도 이상 없는지 엄격히 따져보면 그들은 자원활동가이다. 아침 9시 출근해서 밤 11시 퇴근(사직 수영장 근무 예) 봉사자에게 일당이 무슨 큰 의미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원봉사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행사의 꽃인 자원봉사자의 정의부터 정의할 필요성을 갖는 것이다.

둘째, 이번 자원봉사자가 제대로 역할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일의 분배가 되지 않아 시간 보내기에 급급했고, 또 어떤 부서는 힘에 겨워 쓰러지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편하고, 쉬운 자리를 찾아 일하려는 봉사자들의 하소연에 운영자들이 애를 먹었으며, 구석진 곳에서 어려운 일(소위 3D직종)을 하려는 봉사자는 많지 않았다.

셋째, 자원봉사자의 매너는 국제적이 되지 못했다. 특히 노인층이 많아 오히려 대접받는 자로 인식하고, 관람에 소일했다면 너무 지나친 말이 아닐는지 모르겠다. 뺏지 한 개 더 얻기 위해 손벌리는 추태나 비품에 손대어 가져가는 욕심에 외국인들이 보는 모습이 어떠했을까?

넷째, 자원봉사자를 마치 하수인으로 착각하는 운영요원들의 자세는 더 큰 문제로 여겨진다. 자기자신도 무엇을 할지도 모르면서, 또한 짜증만 내고 함부로 말하는 모습에서 회의를 느끼고 봉사활동을 포기하는 분도 있었다.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같이 잡담으로 소일하는 일부 운영자의 모습은 보기가 좋지 않았다.

4. 자원봉사활동의 개선점과 발전방향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의 근본원인에서 향후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의 선발에서 누구나가 아니고 필요한 부문의 사람을 엄선해야 한다. 자원봉사에서 무슨 선발이냐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일방적인 캠페인 행사는 무조건 머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행사에는 어느 정도 일에 맞는 기본지식이 필요하고, 건강조건이 맞아야 한다.

둘째, 자원봉사의 교육은 전반적 집합강의보다 세부적인 일 중심으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5천여명이 모인 구덕체육관의 1차 FG대비 연수교육에서 3분의 열띤 강의가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 말은 직무분야별로 꼼꼼하게 유치원생 교육 같이 기본부터 가르쳐야 한다.

셋째, 자원봉사가 며칠간 계속된다면 최소한 점검이 이루어져 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잘하겠지 하고 무관심속에 일의 보람을 잃게 되고, 본연의 일에 대한 성과여부가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알 수가 없다. 격려하고 비교 지적하면서 평가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

넷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력한 봉사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은 못해 주지만 행사가 마친 후 주어지는 상 배부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좋은 상을 독차지하는 관례에서 봉사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선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 중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가 이제 빈번하다. 국회에 기제출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의 통과로 전국 센터가 설립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등이 해결되어 재해 시 최소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부산시 등 지역자치단체별로 봉사단체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 태풍·수해·화재·지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너무나 소중한기에 재난과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여 민·관협력 파트너쉽 구축이 절실하다.

통상적으로 오늘날 지역분권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사가 창의적인 이벤트 행사로 많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시민의 참여 없이는 모든 대회의 시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일본은 '95년 고베지진이후 수많은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자원봉사자 등이 몰려와서 훌륭한 활동으로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99년 소위 NPO법이라는 '공익 비영리단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 부처들의 상설조직체가 만들어지고, 지역 볼런티어센터들 역시 사회복지 외의 분야까지 자원봉사자들을 효과적으로 배치·관리하는 노력을 보였다.(시민사회, 8호, 이창호.) 그럼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방자치단체행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확대는 필연적이고, 또한 그 성과는 다대하기에 조직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봉사자 관리에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회원가입 안내

「한국자원봉사포럼」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아래의 혜택을 드립니다.

- 정기포럼, 세미나 자료집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포럼의 연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매 회 포럼행사에 초청장을 받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11-3번지 풍전빌딩 201호
 Tel : 02-756-1046 / Fax : 02-778-1047
 E-mail : kovof@hanmail.net / H-page: www.volunteerforum.org

· 가입비: 30,000원

《입금계좌: 038-055961-01-012 중소기업은행, 예금주: 이성철[한국자원봉사포럼]》

포럼(회원)입회신청서

성명	한글			주민 등록 번호		
	한문					
	영문					
소속				직 위		
연 락 처	직장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팩스	
	주택	주소	우편번호 : -			
		전화			휴대 전화	
전자 우편						
<p>본인은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2. . . .</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_____</p>						

제33회 정기포럼 자료집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와 자원봉사

발행일 : 2002. 12. 9

발행처

한국자원봉사포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3번지 풍전빌딩 201호

Tel : 02-756-1046, Fax : 02-778-1047

H-page: <http://www.volunteerforum.org>
